



특집 _ 조국의 어려움 함께한 재일민단 설립 70주년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

화제 _ 미국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 등 각별한 예우 늦었지만, 명예로운 행사 가득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청동 유물 당대 최고의 기술 수준



1

- 1. 한국식 동검 문화를 대표하는 화순 대곡리 동검.
- 2. 국보 제143호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유물. 위로부터 잔무늬거울, 팔주령, 청동 도끼와 새기개,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 3. 국보 제143호 청동 유물 일괄품 출토지인 전남 화순 대곡리 유적지



2



3

전남 화순 대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들은 한국식 동검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이 유적에서 한국식 동검 5점, 청동 도끼 1점, 청동 새기개 1점, 정교함의 극치인 잔무늬거울 2점, 팔주령 2점, 쌍두령 2점 등 총 13점의 청동 유물이 발견됐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크게 요령식 동검이 만들어진 시기와 한국식 동검이 만들어진 시기로 나뉜다. 한국식 동검 문화는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청천강 이남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대표적인 청동 유물로는 날이 직선인 한국식 동검, 투겁창, 꺾창, 잔무늬거울, 각종 방울류 등이 있다.

청동기 제작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물은 잔무늬거울이다. 대곡리에서 출토된 2점의 잔무늬거울 크기는 각각 18cm, 15.6cm로 크게 바깥쪽 부분, 가운데 부분, 안쪽 부분으로 나누어져 다른 문양 조합이 배풀어져 있다.

청동 제품은 광석을 녹여 얻은 용액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다. 거푸집에서 찍어낸 청동 제품은 마지막으로 숯돌을 이용해 가장 자리를 다듬거나 날을 세우거나 모양을 내어 마무리한다. 청동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이처럼 까다롭고 세심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질 수는 없었

을 것이다.

화순 대곡리 유적은 묘광을 2단으로 깊숙이 파고 목관 위를 돌로 채운 돌무지널무덤이다. 이전 시기에 유행했던 고인돌이 지배자의 무덤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기념물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면 돌무지널무덤은 매장될 '한 사람'을 위해 깊은 묘광을 파고 최고 수준의 청동기를 다량 넣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참]**



표지 이야기

설립 70주년을 맞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문 날인 철폐 운동을 펼치고 취업 차별 철폐와 민족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 02 한국의 얼**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청동 유물
당대 최고의 기술 수준
- 04 특집** 조국의 어려움 함께한 재일민단 설립 70주년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
- 06 동포소식** 인도 첸나이한인회, 현지 홍수 피해 구호 성금 전달 외
- 09 동포 캘린더** 유럽 한인 학생들, 그리스서 우리말 응변 솜씨 겨룬다 외
- 10 기획** 교역 증가로 위상 높아진 칠레 한인사회
한인 소식지 발간하며 화합 주력
- 12 화제** 미국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 등 각별한 예우
늦었지만, 명예로운 행사 가득
- 14 글로벌코리안** 22년째 유색인종 대상 무료 수학 교실 여는 이길식 미국 UTD 교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서 호텔·한식당 운영하는 차진성 사장
광고업계 ‘미다스의 손’ 베이징 조선족기업가협회장 이춘일
- 16 지구촌통신원** 미국 이민 113주년 맞아 '미주 한인의 날' 행사
한미 공동 발전의 가교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와 법률구조 제도
전화, 인터넷, 편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안보와 경제에 여론 결집 호소
- 19 OKF 뉴스** “지난해 한상대회 만족도 역대 최고” 외
- 20 동포의 창** 파독 간호사 출신 최초 의사 이민자
'주경야독' 하며 운명을 개척한 작은 거인
- 22 동포문학** 엄마의 딸
김현숙 _ 호주 _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함천호에서 작은 고깃배를 띄워 잡는 빙어
맑고 투명한 겨울의 진미
- 26 재단공지**



조국의 어려움 함께한 재일민단 설립 70주년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

재일동포는 식민지 지배의 산물로 생겨났다.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882년에 4명, 1909년에는 790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이고 소수가 외교관, 정치적 망명자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파급 효과로 활황을 맞은 일본 기업은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임금의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그들은 모집 브로커를 조선 지역에 파견해 노동자 모집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재일 조선인의 수는 1915년의 3천917명에서 1920년에는 3만 189명으로 5년 만에 8배가량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고 1939년 7월에 노동력 동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1939년 9월에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향 취급 요강’을 발표해 강제연행이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1945년에는 210만 명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3월까지 140만여 명이 귀국하고 60만 명이 남았다. 이들

이 현재 재일동포의 원형이다.

전후 일본은 재일동포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1947년 외국인으로 등록시키면서 편의상 ‘조선’ 국적을 표기하게 했다. 이는 실제 국적이 아닌 외국인 등록상 기호였다. 1965년 한일 간 국교 수복으로 형식상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다. 당시 협정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은 그들이 일본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일본 정부가 협조하도록 명시해놓았다. 그러나 법적 지위에는 강제되거 조항이 있어 늘 재일동포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를 일본에서 쫓아내려고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일동포는 외국인 등록증을 상시 휴대하지 않으면 추방됐으며, 외국인 등록 신고를 할 때도 20년간의 거주 기록 작성이 의무화돼 누락이나 잘못이 있으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이동이 잦았던 동포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였다.

재일동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구심점으로 하는 한국



2



3

국적 재일동포, 친북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중립 입장을 고수한 조선적(朝鮮籍·무국적)으로 갈라져 있다. 재일동포 가운데 일본 국적을 선택한 귀화자도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구하겠다고 모두 642명의 재일동포 학도의용군이 목숨을 걸고 참전했다. 3년에 걸친 6·25 전쟁 기간에 그중 52명은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행방불명됐다. 재일동포의 6·25 참전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해외 국민 참전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서울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제 16묘역에 가면 재일학도의용군의 위령비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통일일보의 서울지사장으로 20년간 재일동포 소식을 국내외에 알려온 이민호(44) 기자는 최근 '재일동포 모국 공헌의 발자취-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그는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을 시작으로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등 주일 대한민국 총영사관 10곳 중 9곳은 재일동포의 모금 활동과 개인 기증에 의해 세워졌다"며 "재외동포가 거주국에 들어서는 모국 공헌의 땅과 건물을 기증한 사례는 재일동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자에는 1997년 IMF 위기 때 조국을 위해 15억 달러를 송금하고 300억 엔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는 등 조국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힘을 보태온 재일동포의 모습이 담겼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문 날인 철폐 운동을 펼치고 취업 차별 철폐와 민족 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경제적으로도 구로공단과 구미공단에 투자하고 새마을운동을 돕는가 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54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모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일한국인투자협회'를 결성해 신한은행을 설립하기도 했고, 롯데를 비롯한 재일 기업들도 투자에 나섰다.

2015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등 체류자를 포함한 재일동포는 50만여 명에 이른다. 재일민단은 이들 동포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서머스쿨도 그중 하나이다. 지난해에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학생을 시작으로 고교생(8.4~7), 대학생(8.9~12) 순으로 각 100명의 참가자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 서머스쿨에 참여해 모국을 배우고 친목을 다졌다. 재일민단의 오공태 중앙본부 단장은 "근년 들어 연간 재일동포 5천 명 안팎이 일본으로 귀화한다"며 "일본인과 결혼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도 많아 요즘 민단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젊은 세대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참]**



4



5



6

1.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제65주년 기념식이 2015년 9월 23일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에서 열렸다.
2.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가한 도쿄대행진이 2015년 11월 22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서 열렸다.
3. 민단은 매년 초등학교부터 청년회 회원까지 모국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모국연수에 참가한 청년회원들이 산업현장 견학의 하나로 수원의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4. 재일민단 전국지단장회의가 1999년 7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5. 재일민단 소속 동포 2천여 명이 2001년 6월 5일 일본 도쿄(東京) 시내에서 재일 한국계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참정권을 소속히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6.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關東)대지진때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9주기 추념식이 2014년 9월 1일 도쿄의 재일민단 중앙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인도 첸나이한인회, 현지 홍수 피해 구호 성금 전달

재인도 첸나이한인회(회장 조상현)는 지난해 말 인도 남부 홍수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을 돕기 위해 그동안 4천여 명의 동포를 상대로 모금한 성금 66만4천700루피(약 1천204만 원)를 1월 11일 인도 구호단체 SST재단에 기부했다. SST재단은 이 기부금을 홍수로 부서진 학교 재건축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인회는 또 12월 7일 18만 루피 상당의 옷과 모포 등을 홍수 피해를 본 인근 6개 마을에 전달했다.

첸나이를 비롯한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서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내린 10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홍수가 발생, 347명이 사망하고 17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첸나이에 사는 4천여 명의 한국 동포 가운데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20가구 정도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



인도 첸나이 SST재단 사무실에서 조상현 재인도 첸나이한인회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이 구호 성금을 재단에 전달하고 있다.

를 겪었다.

그동안 한국 기업과 동포들은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주 정부 구호 팀에 1만여 개의 구호식품을 전달하고 1천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담요, 식수, 옷가지를 전달했다. 주 정부 구호기금에도 2천만 루피(약 3억5천만 원)를 기부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1천만 루피 규모의 생수와 담요를 마련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조 회장은 “첸나이 거주 일부 한인도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보았지만 가족과 집을 잃은 현지 주민의 아픔이 심각해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인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 LA 대한인국민회 유물 1만 점, 연내 한국행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시에 보존돼 있는 대한인국민회의 유물이 미국에서 약품 처리 과정을 거쳐 연내 한국으로 간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한미역사보존위원회는 1월 21일 LA 시내 대한인국민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역사적인 사료를 현지에서 보존하느냐, 한국으로 보내느냐를 놓고 참여하게 대립해왔지만, 1월 14일 미국 법원의 중재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한인국민회는 지난 1910년 2월 미주 여러 지역에 분산된 한인



대한인국민회 유물 보존 추진 관계자들이 1월 21일 합의 계약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체가 통합해 출범한 독립단체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5~1919년 중앙총회 총회장을 지냈다.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는 등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이던 LA 대한인국민회는 2003년 건물 복원 공사를 하다가 독립운동과 관련한 귀중한 유물 1만 점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약 2만 쪽에 달하는 고문서 1만 점은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약품 처리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거친 뒤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진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유물을 보존할

수장고 시설이 마련되면 유물 보존 운영위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위탁 관리하던 유물을 다시 가져오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 선양서 무오독립선언 기념식 거행

만주와 러시아 등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1919년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1월 3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협의회 회원, 선양한인회 회원, 재중 동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독립군가를 불렀다. 무오독립선언의 중심지인 만주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거행된 것은 올해로 네 번째이다.

무오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음력 1918년 11월)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조소앙, 신채호, 안창호, 김좌진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조국 독립



1월 3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제97주년 무오독립선언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을 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이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당시 무오독립선언을 통해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육탄혈전의 무력적 대일 항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독립기념관엔 당시 배포된 선언문 원본이 보관돼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3대 독립선언 가운데 무오독립선언은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과 서울에서의 3·1 기미독립선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무오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9인은 일제가 패망해 광복을 맞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친일 변절자도 없이 항일투쟁을 계속하거나 순국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재일동포, ‘혐한시위자 공개’ 오사카조례 환영

일본에서 최근 수년간 빈발해온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 시에서 처음 제정된 데 대해 재일동포 사회가 크게 고무됐다.

지난 1월 15일 오사카 시의회가 진통 끝에 가결한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로 인정된 발언이나 시위를 한 사람 및 단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비록 처벌 조항이 있는 법규정은 아니지만 재일한인·조선인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오사카 시에서 혐한 시위에 명확히 반대하는 조례가 생긴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동포 사회는 보고 있다.



오사카(大阪)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혐한단체 회원들의 시위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전국 지방조직을 총동원, 각지 지방의 회들이 헤이트 스피치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왔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오랜 노력의 결실로 자평하고 있다.

재일민단 중앙본부 오공태 단장은 1월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재일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 마음으로 경의를 표

한다”고 밝힌 뒤 “우리들은 헤이트 스피치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하나라도 더 나오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 한인 클래식 연주자 돕는 공연기획사 탄생

한인 음악가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고국에서의 공연을 돕는 한인 기획사가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 탄생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기획사 WCN(World Culture Networks · 대표 송효숙)은 1월 29일 빈의 임페리얼 호텔에서 한국 음악가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의 진출을 알렸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 기획사는 WCN이 유일하다.

이날 공연에는 테오도로 카니치 국제소팽협회장, 송영환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 민정기 모차르트음대 교수 등 80여 명의 저명인사가 참석했다. 쇼케이스에는 세계적 명성의 뮌헨 ARD 국제음악콩



오스트리아 빈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기획사 WCN은 한국 음악가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의 진출을 알렸다.

쿠르 성악 부문 준우승을 차지한 소프라노 이수연, 빈 국립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하는 바리톤 양태중, 독일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극장 솔리스트인 바리톤 이동환,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약하는 테너 정호윤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매료시켰다.

WCN은 그동안 한국과 유럽 각국의 우정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연을 펼

쳐왔다. 송효숙 대표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인사와 언론 등을 초청해 WCN 소속 음악가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열었다”며 “연주자들이 고국과 국제무대에서 맘 편히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매니지먼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재미동포 재니스 리, 두 번째 장편소설 ‘이민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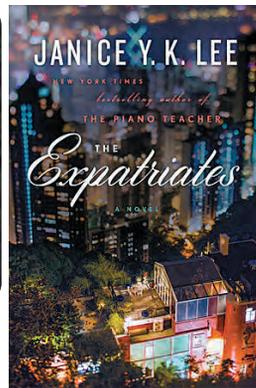
홍콩 출신 재미 한인 2세 소설가 재니스 리(한국 이름 이윤경 · 44 · 여)가 두 번째 작품 ‘이민자’(The Expatriates · 바이킹 프레스 간)를 최근 선보였다.

재니스 리는 2009년 1월 첫 소설 ‘피아노 교사’(The Piano Teacher)를 펴내 2주 만에 뉴욕타임스의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1’에 올려놓았고, 전 세계 23개국 출판사를 통해 21개 언어로 번역 출간하는 등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홍콩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닌 그는 미국 하버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재미동포 소설가인 이창래 교수가 재직하는 헌트대 대학원에서 소설 창작을 공부한 뒤 ‘피아노 교사’를 썼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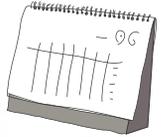
홍콩 출신 재미 한인 2세 소설가 재니스 리가 두 번째 장편소설 ‘이민자’를 최근 선보였다.



민자’는 그가 7년간의 공백을 깨고 독자의 곁으로 돌아온 두 번째 장편소설인 셈.

책 발매 하루 전인 1월 11일 뉴욕타임스는 서평란에 이 소설을 자세히 소개했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출간 소식을 전했다. 특히 여성잡지 ‘마리끌레르’는 ‘가장 먼저 반드시 읽어야 할 2016년의 소설’로 꼽았다.

‘이민자’는 첫 장편소설의 무대였던 홍콩을 배경으로 미국 국적의 젊은 여성 3명이 홍콩의 이민자 커뮤니티라는 좁은 사회에서 만나 서로 교류하며 씨줄과 날줄로 교직하는 삶을 그리고 있다. **창**



유럽 한인 학생들, 그리스서 우리말 응변 솜씨 겨룬다

유럽 27개국 35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모여 우리말 응변 솜씨를 뽐내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와 그리스한인회(회장 남정자)는 유럽에서 자라나는 한인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우리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한국 문화를 심어주고자 오는 3월 1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등을 주제로 '제5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응변대회'를 개최한다.



4월 호주 시드니서 '코리아 페스티벌' 열린다

오는 4월 호주 시드니에서는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축제가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설을 전후해 열린 '시드니 코리아 타운 축제'를 5회째인 올해부터는 '시드니 코리아 페스티벌'로 이름을 변경하고, 개최 시기도 4월 2일로 바꿨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는 시드니한민족축제위원회(위원장 이강훈), 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안신영),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지사장 제상원)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미국 워싱턴한인연합회, '통일 국채' 발행 촉구 서명운동 전개

미국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 · 52 · 여)가 재미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 국채' 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금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제는 재외동포에게 '통일 국채'를 팔 때가 됐다"며 "샀다가 돌려받을 수 있기에 조국에 기여할 길을 찾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대량 매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킨텍스 시대' 연다

전 세계 70개국에 137개 지회를 둔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 회장 박기출)가 창립 35주년을 맞는 올해 '킨텍스 시대'를 새롭게 연다. 월드옥타 국제사무국은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역곡동의 KOTRA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올 2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차세대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이 들어선 '제2사무국'을 개관하기로 했다.



홍콩한인회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 3월 1일 취임

올 1월 7일 치러진 선거에 단독 출마해 홍콩한인회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당선된 장은명(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당선인이 3월 1일 개최되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회장으로서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장 당선인은 2001년 한인회 이사로 시작해 2012년 이후 부회장으로서 한인회 업무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홍콩한인여성회 회장, 홍콩한인요식업회 회장, 홍콩한인상공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호주 '코리아 가든' 사업, 올 상반기 공개 입찰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옥상두(62) 시장이 시드니 한인회관을 비롯해 회의장, 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코리아 가든' 예정 부지에 대한 공개입찰이 이르면 올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의원 투표로 통해 1년 임기의 시장으로 선출된 옥 시장은 사업 진척을 위해 현재 3개월마다 열리는 카운슬의 '코리아가든 운영위원회' 회의를 올 2월부터는 자신의 주도 아래 매월 열기로 했다.



교역 증가로 위상 높아진 칠레 한인사회 한인 소식지 발간하며 화합 주력



지난해 4월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첫 일정으로 수도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만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칠레 동포사회에 대해 “40년 전 불과 5가구의 화훼농가로 출발한 칠레 동포사회는 남미 지역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오면서 지역사회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치하했다.

한국 정부는 1962년에 해외이주법을 제정해 잉여 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냄으로써 인구 압력을 줄이고자 했다. 이 시기의 농업 이민은 한국 정부에 의한 최초의 집단 이민이었다. 남미 초기 이민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농업 이민이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1970년대에 루한 농장, 산로렌소 농장, 얏다마우카 농장, 이스까이꾸 농장, 산하비에르 농장 등 농업 이민이 성했다.

그중 루한 농장은 칠레로 가기로 했던 화훼 재배 이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갑작스럽게 마련된 것이다. 칠레

에 좌익 정부인 아옌데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국 정부가 계약해 두었던 토지를 포기하게 됐고, 확정된 이민 희망자들을 위해 1971년 3월 급하게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루한의 땅 11ha를 구입했다.

칠레 이민은 1970년 5월 10일 김병위 씨 가족 등 5가구가 입국한 것이 시작이다. 그러나 아옌데 정권 수립 이후, 정정 불안으로 이들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고 1가구만 잔류했다. 1977년 이후 아르헨티나로부터 다수의 가구가 재이주해 온 후 1978년 11월, 30가구 100여 명의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재칠레한인회(초대 회장 이용천)가 설립됐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 칠레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덕에 많은 수의 한인이 이주했다.

1981년에는 여학교를 빌려 토요 한글학교를 개설하고 40명의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1988년에는 한글학교 건립위원회가 구성돼 한인회 모금과 정부 보조비로 건물을 매입한 뒤 3개월간 수리해 1989년 5월 27일 기

존 한글학교를 개교했다. 올해 1월 21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한봉래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존 한글학교 대지 매각과 연동돼 있는 칠레한인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대 말에는 이민 가구가 크게 증가해 250여 가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칠레가 무비자국임을 이용해 브로커를 통한 불법이민이 늘어나면서 한인 동포들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됐다. 1991년에는 160여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자 연장을 불허해 대량 추방 사태가 빚어졌다. 이들은 나중에 정부 협조로 전원 구제됐다. 이후 한인회와 대사관의 꾸준한 노력, 한국과 칠레간의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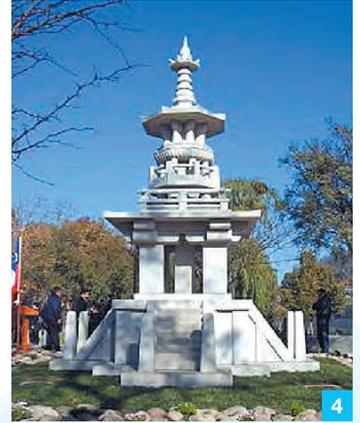
칠레에서는 최근 케이팝(K-Pop)과 한국 영화, 한국 음식 등을 앞세워 한류가 저변을 넓히면서 한인 동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칠레의 한류 팬클럽인 '나눔 칠레'는 현직 교사와 대학생, 회계사 등 4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눔 칠레'는 2014년 10월 28일 지역사회 공헌과 한류 홍보를 목적으로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로 결성됐다.

2015년 5월 9일 칠레 올림픽대표팀 선수촌에서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인 '코파 코레아'(Copa Corea)가 열렸다. 칠레한인회,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 칠레태권도협회가 태권도 보급 확산과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이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 등 2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은 2015년 5월부터 매주 토요일 2시간씩 2개 반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칠레 동포 수는 2015년 외교부 통계에서 2천725명을 기록해 2013년 조사와 비교할 때 5.8% 증가했다. 칠레 거주 동포들은 주로 산티아고에 거주하고 있다. 산티아고에만 2천422명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이다. 동포들은 산티아고 시내 한인 밀집 지역인 파트르나토에서 의류 및 잡화 도매와 소매에 종사하고 있다. 이외에 화장지·비닐·지퍼·봉제·수산가공 등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칠레 사회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이후에는 건설·건설자재·호텔·학교 등 분야로 신규 이민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동포 2세대들은 변호사·교수·의사 등 고급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 한인회는 1995년에 창간한 칠레한인신문을 매주 화·금요일에 전자신문 형태로 한인회 등록 동포에게 무료로 배포해 화합을 다지고 있다. **창**



4

1. 2015년 5월 9일 칠레 올림픽대표팀 선수촌에서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인 '코파 코레아'가 열렸다.
2. 칠레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4월 21일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화동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3. 칠레한인회가 2010년 3월 27일 지진 피해 지역인 로타를 방문하기 위해 담요와 의류 등 구호 물품을 싣고 있다.
4. 한국 정부가 칠레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기증한 대표적인 전통 문화재 다보탑의 제막식이 수도 산티아고 시내 리베라수르 공원에서 2011년 5월 25일 열렸다.
5. 칠레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들과 '한류 칠레' 등 현지 한류 팬클럽들이 2014년 11월 16일 '나눔 인 칠레' 오프라인 결성식을 열었다.
6. 칠레에 거주하는 동포 무역상들이 2005년 11월 3일 칠레 산티아고 KOTRA 무역관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칠레지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5



6

미국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 등 각별한 예우 늦었지만, 명예로운 행사 가득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가 1월 12일 주 의회 의사당에서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주 정부가 직접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를 주 의회 의사당으로 초청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데니스 다우가드 주지사의 시정연설에 이어 열렸으며, 래리 짐머맨 주 보훈부 장관의 사회로 다우가드 주지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210명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주 의회 의사당에 참석하지 못한 참전용사 260명은 이날 지역방송사들이 중계방송을 하는 가운데 카운티와 시별로 같은 시간대에 메달을 받았다.

다우가드 주지사는 환영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명해온 것에 감동했다"면서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다우가드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정전협정 기

념식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전 세계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카고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94명에게 '호국영웅 기장'을 수여하기도 한 박 보훈처장은 축사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유엔 참전 21개국과 유엔 참전용사 195만 명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참전용사 중 90%가 넘는 179만 명이 미군이며, 이들은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지켜줬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사우스다코타 주가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보훈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다우가드 주지사를 '명예 평화의 사도'로 임명했다.

앞서 사우스다코타 주는 올해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 프로그램(RAV)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1.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월 12일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과 유화 액자를 증정하고 있다.
2. 데니스 다우가드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1월 12일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초청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박승춘 보훈처장은 1월 11일 시카고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94명에게 '호국영웅 기장' 을 수여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47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올해에는 한국전, 내년에는 베트남전, 2018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를 위한 특별 예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다우가드 주지사와 박 보훈처장을 비롯해 주 의회 상·하원 의원 100여 명, 주 정부 각료 25명, 김상일 시카고 총영사,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한 '헌정 비행' 프로그램

한편 미국 시카고의 비영리단체 '어너 플라이트 시카고' (Honor Flight Chicago · HFC)는 오는 4월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헌정 비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참가자들은 현역 군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워싱턴DC에 가서 한국전쟁 기념관·워싱턴 기념탑·2차대전 기념관·베트남전쟁 기념관·스티븐 F. 우드버 헤이지 센터 등을 돌아본다. 2차대전 기념관 앞에서 백파이프 연주를 배경으로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기념식을 거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HFC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메리 페티나토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웅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와 인근 교외 지역에 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수를 3만 5천 명으로 추산하면서 "지금까지 1천200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FC는 시카고 지역 여성 기업인 4명이 이 지역에서 2차대전 참전용사들을 찾아내 그 희생과 헌신의 뜻을 기리고 감사를 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설립했다. 이후 작년 말까지 총 68회에 걸쳐 모두 5천931명의 참전용사에게 워싱턴DC를 목적지로 하는 '명예로운 비행'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HFC는 올해 처음으로 그 대상을 한국전 참전용사로 넓혔다.

시카고 교외 도시 오로라에 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루쿠엘조(81)는 "2008년 신청서를 내고 기다렸다"면서



2



3

"워싱턴DC 방문도 소중한 기회지만 그보다도 경험과 기억을 공유한 전우들이 무척 그리웠다"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1952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미 해군 소속으로 파병돼 8개월간 복무한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2차대전 참전용사들과 같은 환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상은 조용했다"며 "한국전에서 3만 6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래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으로 불렸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 제1기계화 사단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톰 케퍼티(86)는 "전우들 소식이 늘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흐뭇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될 것 같다"며 만감이 교차하는 심경을 표현했다.

올해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헌정 비행 프로그램은 4월 13일, 5월 11일, 6월 8일, 7월 13일, 8월 10일, 9월 7일, 10월 5일 등 7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페티나토 CEO는 "하루 일정이지만, 참가자들은 '일생에 다시 없는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이 됐다'고 말한다"면서 "말로 대신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참]**

GLOBAL KOREAN

22년째 유색인종 대상 무료 수학 교실 여는 이길식 미국 UTD 교수

가난한 흑인 · 베트남 학생에 큰 도움



미국 텍사스 주 북부의 중심 도시 델러스 인근 갈랜드 시에 있는 베트남 공동체 센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학문의 전당’으로 바뀐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베트남·흑인 학생들은 60개 좌석을 빼곡히 채운 채 두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푼다.

이길식(63) 델러스 텍사스대학(UTD) 전기공학과 교수가 만든 ‘인텔리초이스’(intellichoice) 무료 수학 교실을 찾는 학생은 거의 가난한 가정 출신이다. 사교육 열풍이 거센 편인 미국에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은 이 교실을 찾아 부족한

실력을 메운다.

이 교수는 경북대를 졸업하고 1981년 미국으로 건너와 1987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루이지애나 주립대를 거쳐 2001년 UTD로 옮겼다. 이 교수는 UTD 수학과 교수인 아내 이정순(60) 씨와 루이지애나 주에 있던 1993년부터 수학 교실을 시작했다.

2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 2만 달러를 준 이 교수는 지난해 말에도 학생 50명에게 500달러씩 2만5천 달러를 줬다. 그는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노는 흑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전공을 살려 수학 교실을 열었다”고 회고했다. 소문을 타고 공짜 수강생과 이들을 도우려는 자원봉사자가 몰렸다. 매주 화요일 또는 토요일에 여는 수학 교실은 델러스 인근 도시로 퍼져 나가 7곳으로 늘었다.

연필과 지우개, 교재 등은 모두 이 교수 측이 준비한다. 학생들은 몸만 와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며 막힌 부분을 이들에게 설명해준다. 이 교수는 “이곳의 베트남 동포 회장이 수학 교실을 1~2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면서 “다른 6곳도 대기 학생이 넘칠 만큼 반응이 좋다”고 소개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호텔·한식당 운영하는 차진성 사장

중동서 한국의 멋과 맛 전도사

“호텔 예약 웹사이트 아고다닷컴, 부킹닷컴 등으로부터 평점 8.5점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서비스 면에서 괜찮은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아시아나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차진성(55·사진 왼쪽) 사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11년 두바이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데이라

지역에 5성급 호텔을 지었다.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이며 13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호텔을 지어서 운영한다. 차 사장은 “지금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다”며 “아시아나호텔과 같은 규모의 호텔을 또 건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나호텔은 다른 대규모 호텔과 철저히 차별화됐다.



호텔 최상층 지붕에 기와를 올렸고, 호텔 로비 양옆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공수한 8m 높이의 소나무를 심어 최대한 한국적 정취를 자아내게 했다. 호텔 내 한식당 '소나무', 일식당 '하나비', 필리핀 뷔페식당 '라메사', 필리핀 고급식당 '마닐라그릴'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차 사장은 새 호텔을 짓고 나면 평소 꿈꾸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차 사장은 호텔업을 하기 전부터 신도시에 한식당 '소반'을 차리고 한국의 맛을 중동 사람들에게 전했다. 태국식 해산물식당 '시월드'도 경영하고 있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한식당의 고객은 30% 정도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매년 3월 두바이 마리나에서 열리는 '테이스트 오브 두바이'에 4년째 참가해 한식을 알렸다.

그는 1976년 UAE에 진출해 가구 회사와 인테리어 회사를 경영한 차정현 '아즈만코리아' 회장의 아들이다. 태국, 미국



등지에서 유학하고 1992년부터 부친의 사업을 돕다가 호텔을 짓고 독립했다. 차 사장은 두바이 한인회 임원, 한인상공인협의회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두바이지회장을 맡고 있다.

광고업계 '미다스의 손' 베이징 조선족기업가협회장 이춘일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 광고 제작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광고를 제작하거나 대행해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재중동포가 있다. 신흥광고(新弘廣告)유한공사, 성동방문화전파(星東方文化傳播)유한공사 등 2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춘일(57) 사장이다.

이 사장은 10년 넘게 SK그룹 광고를 대행했고, 삼성전자·LG·현대자동차·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중국에 진출한 20여 개 대기업 광고를 제작했다. 성동방문화전파유한공사는 연예기획사로서 다양한 이벤트와 콘서트를 유치해 여는 동시에 연예인 양성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의 실용예술학과에 중국인 학생들을 진출시키는가 하면, '끼'가 있는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 트레이닝을 받게 하기도 하고, 오디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그는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현의 조선족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연변대 조선언어문학과를 나온 그는 대학에 남아 교원으로 지내다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며 베이징으로 갔고, 그곳에 있는 중앙민족출판사에 편집 담당으로 입사했다.

1994년 독립해 신흥광고유한공사를 설립한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드라마 판권 수입에 나서면서 한국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났고, 자연스럽게 친해져 광고 일을 시작했다. 제일기획, 금강기획 등 광고기획사들과 교류하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4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연간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을 일궈냈다.

그는 베이징에 '대동강식당'이란 북한 식당도 열었다. 그는 2014년 베이징 내 200여 명의 회원을 둔 베이징 조선족기업가협회 제2대 회장에 뽑혔다. 회원의 권익 신장과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이긴 하지만 한중 FTA 시대에 맞는 조선족 기업인을 양성하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



미국 이민 113주년 맞아 '미주 한인의 날' 행사 한미 공동 발전의 가교

노효동 |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워싱턴 미주한인재단(회장 미셸 김)과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은 1월 11일 워싱턴DC 연방하원 캐년하우스에서 미주 전역의 한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미 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찰스 랭글(민주·뉴욕),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바버라 캄스탁(공화·버지니아),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등 10여 명의 연방의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안호영 주미대사가 대독한 특별 축사에서 "미주 동포 사회는 한민족 특유의 성실성과 강인함으로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미 양국의 공동 발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하고 차세대 동포들이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셸 김 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재미 한인들은 '이민자의 나라'로서의 미국의 과업을 강화하는 데 자랑스러운 역할을 해왔다"면서 "세대를 이어가며 미국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치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평화와 지역 안정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믿음,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공통의 약속, 기후 변화에 대한 공통의 투쟁, 글로벌 보건과 세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수년 내에 안전하고 안정된 세계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



▲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워싱턴DC 연방하원 캐년하우스에서 개최됐다.

▶ '한국 사위'로 소문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 주지사(가운데)와 유미 호건 여사는 1월 11일 주 의사당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 기념식을 개최했다.



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합창단(단장 황현주 교장)의 합창이 크게 주목을 받은 가운데 워싱턴 '소리창'과 워싱턴 가야금 '금우악'의 한국 전통음악 공연,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고 경기국제민화 한류회 소속 작가들과 경기도 시흥 향토민속 보존회 회원들이 특별 출연했다.

임소정 회장은 "연방의회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권도 시범이 펼쳐진 것은 한인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면서 "2005년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한 것도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으로는 3번째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재외동포와 법률구조 제도

전화, 인터넷, 편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법률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이다.



2015년 3월 30일 법무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9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 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밖에도 법률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양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지부 그리고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하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9년에 창설되어 서울시 여의도에 본부가 있으며 전국에 29개 지부와 미국에 6개의 해외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1988년 7월 2일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한 가정문제 전문기관으로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동포들은 각종 법률 문제나 가정 문제에 관해 상담소의 해외 지부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전화(02-1644-7077),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사이버 상담실)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업무는 법률 상담에서 시작된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를 해 주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준다.

법률 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일에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면 된다. 특히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는 토요일 및 야간(수요일)에도 상담을 하고 있다.

이밖에 전화, 서신, 컴퓨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82-2-3482-0132번이다.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상담은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한다. 법률 정보 자료실에는 총 5천300여 건의 법률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생활에서 빈발하는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상담 사례를 실고 있다. 또한 각종 법률 서식을 내려받아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자동음성안내 서비스(ARS)를 통한 법률 정보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창**

Q&A

소송대리, 형사 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공익법무관이란?

공익법무관이란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병역 미필자 중 병역법에 의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법률구조 업무나 국가 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안보와 경제에 여론 결집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북한’이었다. 안보와 경제 등 두 축의 동시적 위기라는 인식 하에 담화 앞부분에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히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 법안 처리에 담화의 상당한 내용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의식을 보였다. 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 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은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화 협력 추진’인데 지난해 8·25 합의 이후로는 대화와 협력이 강조됐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장]**

“지난해 한상대회 만족도 역대 최고”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는 전 세계 44개국에서 활동하는 1천여 명의 동포 기업인이 참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0월 연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는 44개국에서 찾아온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모여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회 참가자 중 7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86.5점으로 나타나 전년(85.6점)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 구성' (47.5%), '효과적인 대회 진행' (46.3%) 등이 꼽혔다.

개선점으로는 '인프라 시설 불편' (84.3%), '대회 사전 안내 및 홍보 부족' (32.8%) 등이 지적됐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특히 한상대회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정보를 얻었다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상대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한상 기업의 모국 투자 등이 많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한글학교 교사들, 인터넷으로 사이버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4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수에는 프랑스, 중국, 미국, 멕시코, 인도 등의 한글학교 교사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서울대 평생교육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어학, 교육론, 문학, 역사, 아동심리 등을 배운다.

중국 교육국, 조선족 교육 지원한 동포재단에 감사패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조선족 학교에 민족 교육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헤이룽장(黑龍江)성을 포함한 동북 3성의 조선족 학교에 전문 강사 6명을 파견해 한국어, 전통음악, 한국무용 등을 전수했다.

이에 헤이룽장성 통화(通河)현 교육국은 지난 1월 15일 동포재단에 감사패를 보내 공로를 치하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조선족 학교는 우리



중국의 헤이룽장성 정부는 지난해 동포재단이 조선족 학교에 강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감사패를 보내 공로를 치하했다.

말과 민족문화를 보존해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지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조선족 학교에 전문 강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재외동포들, 고국 청소년에 장학금 후원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차세대 기업인 모임인 'YBLN' (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이 국내 고교생과 대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장학생들은 앞으로 1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며, 내부 심사를 거쳐 1년마다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YBLN은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상대회에서 결성된 청년 경제인 모임으로, 31개국 17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YBLN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 공헌에 동참하고자 '꿈꾸는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고려인 청소년, 베트남 장애 어린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창**

파독 간호사 출신 최초 의사 이민자

'주경야독' 하며 운명을 개척한 작은 거인

박경란 | 재독 칼럼니스트

직 접 담갔다는 모과차를 내왔다. 따스한 모과 향을 마주하니 이 국에서의 겨울이 나뭇 지낼 만하다. 사람의 기억은 오감으로 더 각인되는 것일까. 진한 향과 입안에 뒹구는 모과가 오랜 기억을 재촉한다. 겨울의 언덕에 서서, 지나온 삶의 계절을 돌아보니 참 들쭉날쭉했다. 순간순간 가슴 한 자락을 베어간 바람도 있었고, 따스한 모과 향처럼 향기로운 때도 있었다.

파독 간호사 출신 이비인후과 의사인 이민자 박사(70)의 바이오 그래피. 그녀를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가 많다.

이 씨는 1945년 2월, 일본 오사카 근교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부모님을 따라 고향인 경상북도 성주로 돌아오게 된다. 큰아버지는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아버지 또한 일본에서 활동했다. 거국적인 일에 몰두하다보니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6·25 전쟁이 터지자 그나마 있던 고향 집도 폭탄에 맞아 전소되었다. 초등학교 담벼락에 움막을 지어 살았다. 3남 4녀 중 셋째였던 이 씨는 풍랑의 어린 시절을 겪었다.

시대적 산물인 듯이 해방동이의 성향은 통이 크고 시원시원하다고 한다. 그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뭐든지 마음먹으면 해야 직성이 풀렸다.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곧잘 했다. 의사가 꿈이었다. 하지만 가난이 발목을 잡았다. 집안 사정상 다른 대학보다 돈이 적게 드는 간호대학에 들어갔다.

1966년 경북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병원 외래 안과병

동에서 일했다. 당시 더 큰 꿈을 위해 미국행을 생각했던 이 씨는 수속도 복잡하고 시험을 쳐야 하는 미국을 잠시 보류하고 독일을 택한다. 가난한 딸로 태어나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고, 가족 뒷바라지도 할 수 있다는 파독 간호사의 길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신문에 난 '독일 간호사 모집 광고'를 보자마자 두 살 위인 언니를 졸랐다. 당시 언니도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이었다. 동생이 씨의 성화에 언니도 독일행을 결심하게 됐고 자매가 동시에 한 비행기에 올라탔다. 언니는 하노버라는 도시에, 이 씨는 베를린 반제병원에 배치되었다.

1966년 10월 15일은 이 씨가 독일에 처음 온 날이다. 잿빛 도시는 우중충했고, 을씨년스러웠다. 당시 128명의 한인 간호사와 함께 왔다. 널따란 홀에 모인 그들은 번호표를 받았다. 번호 순서대로 병원에 배치되었고 누가 어느 병원에 배치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병동생활은 시작되었다.

반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내면은 희망을 싹틔우기 시작했다.

배치된 반제병원은 숲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 경관과 건물은 꿈에서도 볼 수 없던 동화 속처럼 멋졌다.

독일병원의 배려로 3개월간 한인 간호사들은 괴테 어학원에서 독일어 공부를 했다. 당시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와 박사 과정을 밟던 구기성 씨가 직접 병원으로 와서 독일어를 가르쳐주기





도 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독일 대학은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없어 의대에 못 갔는데 그 말 들으니 귀가 번쩍 띄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사에 대한 꿈을 품었다. 2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에 위한 독일어 공부에 돌입했다. 이 씨가 일하는 병원은 시 외곽에 있어서 시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으스스한 밤이었다. 기쁨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외롭고 지친 날들인 데다 무엇보다 독일 간호사들의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국에서 온 하찮은 간호사가 독일에서도 어렵다는 의사가 된다고 하니깐 눈꼴사나운 거죠. 종종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했다고 덮어씌우기도 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죠.”

이 씨는 그때의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번은 병원 측에서 독일인 간호사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니 한인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방을 내놓고 청소부들이 묵는 다락방을 사용하라고 했다. 물론 다락방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돈이 궁한 한인 간호사들은 방을 옮겼다. 쌀도 아까워서 못 사서 먹고 가끔 병동에서 빵 한 조각 가져와서 먹던 시절이었다.

이 씨는 방을 옮기기 싫어서 고집을 피웠다. 한인 간호사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과장에게 미운털이 박혔고 지리적 여건 때문이라도 이 씨는 병원을 옮기고 싶었다.

이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은 결과 독일에 온 지 3년 만에 꿈에 그리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물론 한국에서의 정규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 입학 전 1년은 예비투어(대학입학 자격시험)를 다시 치르기도 했다. 예비투어 시험 과목은 독일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사회과학, 라틴어였다.

“독일어도 어눌한데 라틴어는 정말 난감했지요. 문제집을 왕창 풀어보는 등 공부를 했는데 피 말리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의대 입학에 필요한 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 씨는 주말과 방학 때 간호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 와중에도 생활비를 쪼개 한국에 송금했다. 그때 다행히 베를린 시가 선발하는 대학 장학생 30명에 들게 돼 6개월간 매달 250마르크(약 17만 원)를 받기도 했다. 이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750마르크를 학교 마칠 때까지 매달 지원받기도 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독일 연방 슈퍼데 총리도 이때 장학금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씨의 노력은 많은 선후배 동료 한인 간호사의 귀감이 되었다. 파독 간호사 중 최초로 의사가 배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에 의과대학에 진학한 간호사들이 생겨났다.

이민자 박사는 의대 졸업 후 벤자민 프랭클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에 이비인후과 개인병원을 개원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음성언어학과 알레르기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고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동양의학학을 배우기도 했다.

틈틈이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침술원을 개원해 남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다. 그 와중에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불러 공부를 시켰다. 그의 조카는 독일에서 치대를 졸업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병원만 몇 개에 이를 정도로 성공한 의료인이 되었다.

이 씨는 의료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한인들 권익 신장, 여성운동, 인권을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1년 정년퇴직 후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서예에 몰두해온 그는 2월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이전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 씨의 인생은 쉽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동안 후회 없이 살아온 그녀의 겨울은 여유 있고 따뜻하다. 인터뷰하는 동안 이미 모과차는 식어버렸지만 그녀가 만졌던 손끝의 온기가 느껴져 더욱 푸근해졌다. **[장]**

엄마의 뜰

김현숙 호주 |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아지랑이 뿌옇게 포자를 터트리면
사납던 바람도 들판에 몸을 뉘이고
봄이 세상을 깨우는 소리를 들곤 했다
겨우내 삭은 마당 끝 두엄 무더기
아직은 시린 밭으로 나갈 생각에 호호 입김을 분다

겨울 잔상은
대문 뒤, 대청마루 밑
파리 튼 채 동면 중인데
부엌 뒷문 삐걱 열면
엄마의 봄이 여러 해째 거기 살고 있다

작은 돌다리 아래 도랑엔
맑은 물 눈물처럼 고이고
음각으로 친 장독의 난(蘭)들은
눈보라에 더 깊은 한숨의 고랑이 패었다

삐죽삐죽 돌아온 백합 순
양지쪽 흩어진 딸기 포기
장독대 옆 앵두나무 꽃봉오리
설렘의 바늘 끝 지나간
하얀 베갯잇 꽃망울 같다

엄마는 이른 봄 내내
엄마의 뜰에 살림을 냈다
빛바랜 약혼 사진 속
살포시 안고 짝은 종이꽃보다 찬란한,
수줍던 얼굴 같은 꽃들을 들여 놓았다
가슴에 박힌
유년의 편린들
하나하나 뽑아 모종을 했다 



바른 말 고운 말

진술 한양 모시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을 보면 상당히 깔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시옷은 모시풀 껍질의 섬유로 짜서 만든 천 옷입니다. 또 '춘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시풀 껍질 섬유와 명주실을 씨실, 날실로 교차시켜서 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시옷 가운데 '진술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술'은 봄가을에 다듬어 지어서 입는 모시옷을 뜻합니다.

우리 속담에 '빨아 다린 체 말고 진술로 있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세탁해서 다림질했다는 티를 내지 않고, 진술로 있듯이 항상 본성을 지니고 남에게 생색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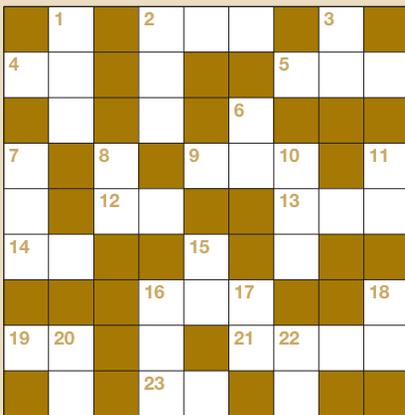
여기서 나온 '진술'이란 말은 앞에서 설명한 모시옷이 아닙니다. '진술'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을 뜻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입니다.

땀 / 올 십자수를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모든 사랑과 마음을 쏟는 작품이라서 더없이 애착이 간다고 하는데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은 바느질을 할 때 바늘을 한 번 뜨는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국에 가서 카펫을 짜는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이 '카펫의 가격이 비싼 것은 카펫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펫을 만드는 것은 바느질의 일종이 아니라 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올이 촘촘한 카펫은 재료도 많이 들고 튼튼하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촘촘하게 짠 카펫의 경우에는 실이나 줄의 가닥을 가리키는 '올'을 사용해서 '한 올 한 올 정성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기원전 212년에 세운 궁전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
- 봄·여름·가을·겨울 네 철 내내의 동안.
-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 식품. 가루수프를 따로 넣는다.

▶ 아래쪽 방향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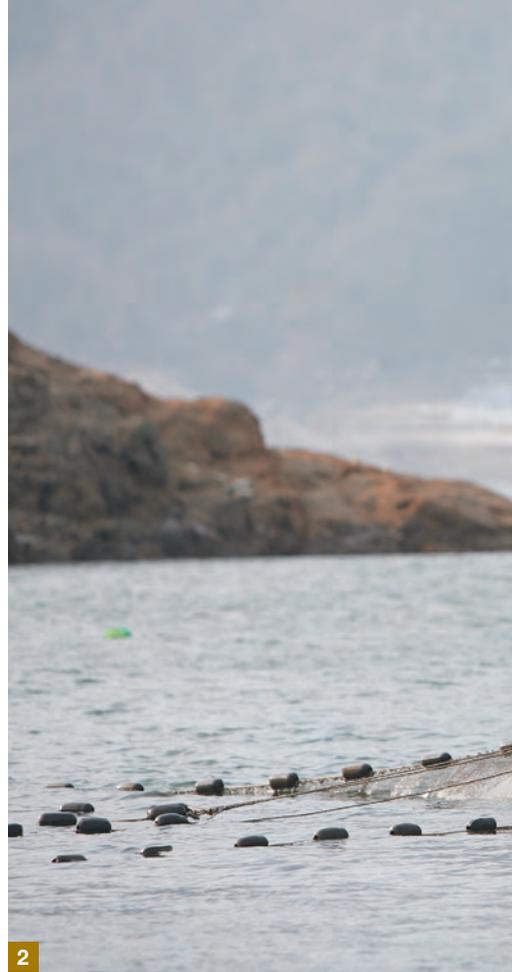
-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설.
-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 중국 한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해 조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다.
-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진주조개·대합·전복 따위의 조가비나 살 속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광택이 나서 장신구로 쓴다.
-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않고 쌓여 있는 눈.
-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11명이 팀을 이루며, 골키퍼 이외에는 손을 쓰면 안 된다.
- 이마로 무엇을 세계 받아 치는 짓.

- 음식을 차리는 데 쓰는 상. 또는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
- 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방.
- 불교에서 말하는 팔부중의 하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으로, 항상 제석천과 싸움을 벌인다.
- 활을 만드는 사람.
- 탄소의 함유량이 0.035~1.7%인 철. 열처리에 따라 성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여러 가지 기계, 기구의 재료로 쓴다.
-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
-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나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월호 정답

소	금	천	대	들	보
나	리	장	채		
기	차	마	구	간	동
	고	생	슬	후	궁
		고	승	총	견
	연	기	시	인	사
수	필	모	내	기	자
채		성	민		회
화	우	애	성	인	암

합천호에서 작은 고깃배를 띄워 잡는 빙어 맑고 투명한 겨울의 진미



한 설이 몰아치고, 강과 호수가 뽕뽕 얼어붙는 겨울은 빙어(氷魚)의 계절이다. 매년 겨울이면 강원도 춘천과 인제의 호수에는 한겨울의 진객을 찾아 나선 이들이 모여든다. 호수를 두껍게 덮은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싯대를 드리우면 투명한 빙어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빙어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다. 강원도의 춘천호, 소양호에서처럼 얼음을 깨고 낚시로 빙어를 잡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지만 경상도의 안동호와 합천호에서는 호수에 작은 고깃배를 띄우고 그물로 빙어를 잡아 올린다.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고속도로) 거창 인터체인지에서 24번 국도를 따라 5분여를 달리면 합천호가 나타난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2개를 건너 10분을 더 가면 대병면의 합천댐 인근과 함께 합천호 빙어의 주산지인 봉산면 새터관광지에 닿는다.

조그만 선착장에서 작은 고깃배를 띄우고



호수 건너편에 거의 다다를 무렵, 그물을 표시한 부표가 수면 위로 나타났다. 나이 지긋한 어부는 기다란 갈고리로 부표 옆의 줄을 집어 올려 그물을 배로 끌어올렸다. 두 손으로 그물을 움켜잡고 끌어올리자 원통형의 그물 아래서 은빛 물고기들이 파닥거렸다. 작고 가는 것이 멸치처럼 생겼다. 어부는 원통을 배 안으로 들어 올려 고깃배의 저장고에 쏟아부었다. 다시 몇 개의 그물을 더 끌어올린 후 선착장으로 돌아온 어부는 그곳에 설치된 저장 수조에 빙어를 쏟아부었다.

빙어는 0~14℃의 차가운 물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11월부터 4월까지 잡히는데, 12



월 말경부터 2월까지가 가장 활동성이 좋으며, 10cm 정도까지 성장한다. 빙어는 오염원이 거의 없는 1급수의 수질에서 생활하는 깨끗한 어류에 속한다.

합천호에서는 그물을 물가에서부터 호수 안쪽으로 30~50m가량 길게 친 뒤, 유도망을 이용해 원통형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빙어를 잡는다. 합천호 빙어는 춘천호, 소양호, 안동호의 빙어보다 크고 상품성이 뛰어나다. 경남도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3월말에 빙어 수정란 4천만 알을 합천호 등에 방류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갈숨도 멸치의 4배에



1. 빙어는 초고추장에 찍어 날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합천호 북쪽 지역에서 그물로 빙어를 잡고 있는 어부의 모습 3. 빙어 튀김 4. 빙어 무침 5. 빙어 조림

이른다는 빙어는 살아 있는 빙어를 통째로 초장에 찍어 먹는 빙어회를 비롯해 무침, 튀김, 조림, 탕국 등으로 즐길 수 있다.

빙어회는 빙어와 초고추장만 있으면 된다. 빙어를 집어 들고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빙어회는 생살이 아삭하게 씹히면서 오이 향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깊어진다. 비린내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겨울의 신선함과 호수의 깨끗함이 몸으로 느껴진다.

빙어 무침도 살아 있는 빙어를 이용한 요리다. 미나리, 배, 오이, 당근, 무, 양배추, 봄동, 깻잎 등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초고추

장 양념과 함께 버무려 깨를 뿌려 내는데 빙어와 채소가 초고추장의 알싸한 맛과 함께 뒤섞여 맛있는 샐러드를 먹는 듯하다.

빙어 조림은 뜨거운 기름에 빙어를 튀긴 후 양념장을 뿌리고 잘게 썬 파, 고추, 당근을 위에 얹어 조리 내는 것으로 멸치볶음을 먹는 듯한 짭조름하면서 끈적끈적한 맛이 여자와 어린이들이 먹기에 좋고, 밑반찬으로 내도 좋은 음식이다.

빙어 튀김은 얇게 튀김가루 옷을 입힌 빙어를 뜨거운 기름에 튀겨 내는 것으로 바삭하면서도 빙어가 씹힐 때는 부드러운 느낌이 전해진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다. **장**

▶ 해인사 장경판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에 있는 국보 52호 해인사 장경판전. 고려시대에 제작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760여 년이 지나도록 나무로 된 경판을 온전히 보관해온 비밀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벽면 아래와 위,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달리해 대류 현상을 절묘하게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 합천군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가야산국립공원 → 해인사 → 대장경 테마파크 → 함벽루 → 합천호 → 합천 영상 테마파크

• 관광 안내

합천군 관광진흥과 (055-930-3754)
합천군 문화관광 포털
(<http://culture.hc.go.kr>)

• 대중교통

고속버스(서울 - 합천 4시간 30분 소요)

• 식당 정보

합천호토속식당 (055-931-9135)
송옥가든 (055-931-6816)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

알쏭달쏭 답답한 민원을 코리안넷 재외동포신문고에 똑똑! 노크하세요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공간입니다.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국내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분야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관련 업무 등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국문과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코리안넷 회원가입 / 로그인
2. 민원신청 - 온라인 신청서에 민원인 정보 입력
3. 하단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국문 또는 영문 작성
4.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 첨부 찾아보기에서 파일 Upload
5. 제출
6. 민원신청 완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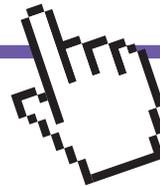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A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